

인간발달에 관한 문화적 접근

1절 인간발달의 오늘과 그 기원

오늘날 인류의 인구통계학적 프로파일

- 인구 성장과 변화
- 국가 간 다양성
- 국가 내 다양성

인류의 기원과 문화의 탄생

- 우리의 진화적 시작
 - 문화와 문명의 기원
 - 인간의 진화와 오늘날의 인간발달
-

2절 인간발달의 이론

고대의 개념

과학적 개념

-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
 -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
 - 문화-발달 모델
-

3절 인간발달의 연구 방법

과학적 접근

- 과학적 접근의 다섯 단계
- 발달 연구의 윤리

연구 방법과 설계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중 국 속담에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편협한 방식을 지칭하는 정저지와(井底之蛙), 즉 “우물안 개구리”가 있다. 이 표현은 평생 조그만 우물 안에서 살았던 개구리에 관한 우화에서 비롯된다. 이 개구리는 자신이 사는 작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진짜 크기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런데 지나가던 거북이가 동쪽에 거대한 바다가 있음을 말해주자 비로소 개구리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 모두가 이 개구리와 비슷하다. 우리는 어느 한 문화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직간접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학습한다. 대체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입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개구리처럼 우리는 인류가 실제로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다양할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의 목적은 사람들이 전 생애에 걸쳐 성장하고 변화하는 방식인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을 이해하는 문화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여러분을 그 우물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이 책이 어느 한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발달해가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culture)**는 집단의 관습, 신념, 예술, 그리고 기술의 전체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어느 한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집단의 삶에 대한 공동 방식이다. 태어난 날로부터 우리 모두는 어느 한 문화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체험하는데, 이는 우리가 발달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 삶을 경험하는 방식에 심대하게 영향을 준다.

물론 생물학 역시 중요하며, 우리는 여러 지점에서 생물학적·문화적 또는 사회적 영향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어디에 살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생물학적 기초를 지니고 있지만 개인의 발달이 일어나는 문화가 어떤 문화이냐에 따라 전 생애를 거치는 개인의 길은 매우 달라진다.

이 책의 전 과정을 통해 나는 인간발달에로의 긴 여행의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환상적인 문화적 파노라마에 주목하여 우물 밖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동료 개구리, 안내자, 친구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인간발달의 다양성과 문화적 훈련을 소개하여, 여러분이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 나름의 발달과 문화적 훈련을 경험해보도록 이끌 것이다. 또한 우리는 문화를 고려한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책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책 전반에 걸친 인간발달을 이해하는 데 선행되는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첫 번째 절은 오늘날 전 세계 인간의 삶에 대한 개략적 요약과 진화적 역사로부터 문화가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다룰 것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이 책의 틀이 될 새로운 문화-발달적 이론과 함께 인간발달의 이론적 개념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마지막 절에서는 과학적 영역으로서의 인간발달에 대한 개관을 다룰 것이다.

1절 인간발달의 오늘과 그 기원



학습목표

- 1.1 지난 1만 년에 걸쳐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서술하고, 미국은 왜 다른 선진국과 다른 인구학적 길을 따르는지를 설명한다.
- 1.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학적 프로파일을 문화적 가치, 수입, 교육의 관점에서 구분한다.
- 1.3 ‘사회경제적 수준(SES)’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SES, 성, 인종이 국가 내에서 왜 인간발달의 주요 측면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 1.4 자연선택 과정과 인류의 진화적 기원을 설명한다.
- 1.5 상부 구석기 시대 이후 인간 문화의 주요 변화를 요약한다.
- 1.6 인간 진화에 관한 정보를 오늘날 인간발달이 일어나는 방식에 적용한다.

인간발달의 오늘과 그 기원 : 오늘날 인류의 인구통계학적 프로파일

이 책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전 세계의 문화 속에서 인간발달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21세기 초, 전 세계 인구의 인구학적 프로파일부터 시작하겠다.

인구 성장과 변화



지난 1만 년에 걸쳐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서술하고, 미국은 왜 다른 선진국과 다른 인구학적 길을 따르는지를 설명한다.

아마도 오늘날 인구의 가장 놀랄 만한 특징은 그 수가 엄청나다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총인구 수는 1,000만 이하였다(McFalls, 2007). 대체로 여성은 4~8명 정도의 아이를 낳았지만 대부분이 영아기나 아동기에 죽어 재생산 연령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인구는 농업과 동물 가축화의 발달과 함께 대략 1만 년 전 무렵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Diamond, 1992).

기원 후 초기 1,000년 동안 인구는 매우 천천히 성장하였고, 실제로 세계 인구가 500만에 도달한 것도 겨우 400년 전이다. 그 이후, 특히 20세기의 인구 성장은 놀라운 속도로 가속화되었다(그림 1.1 참조). 인구가 5억에서 10억으로 2배가 되는 데에는 단지 150년이 걸렸고, 그 시기는 1800년이다. 그 후 20세기에는 의학의 발전으로 천연두, 발진티푸스, 디프테리아, 콜레라 같은 치명적 질병이 사라지거나 발병률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 결과, 1930년까지 20억이었던 인구가 1999년에는 60억으로 3배 증가하였다.

인간발달 전 생애에 걸쳐 사람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방식으로, 생물학적·인지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이 포함됨

문화 어느 한 집단의 관습, 신념, 예술 그리고 기술의 종합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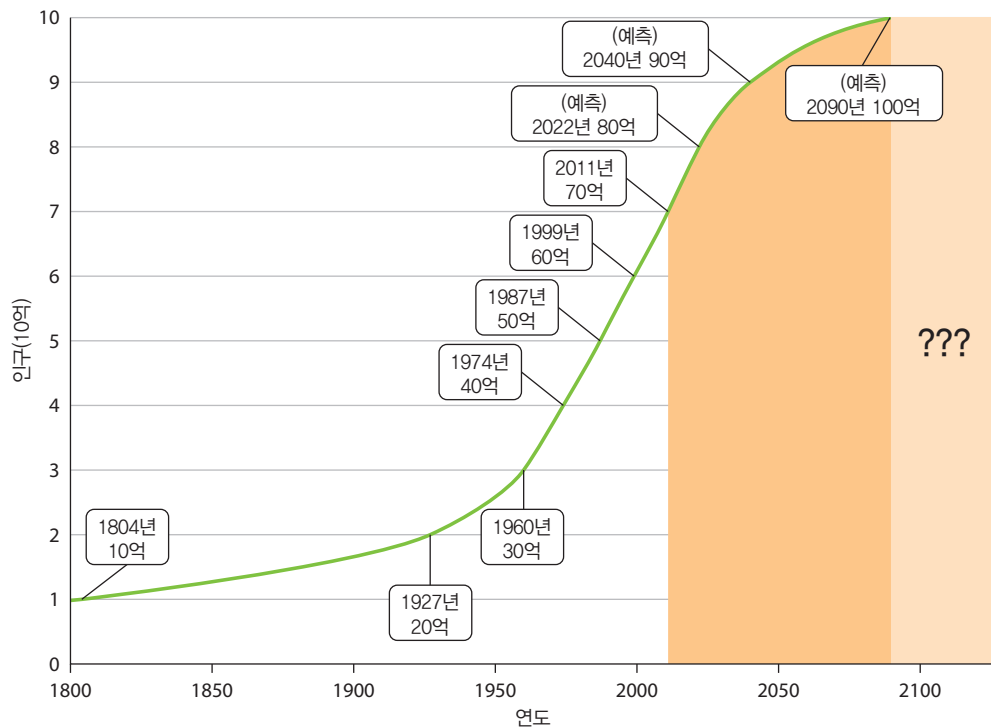


그림 1.1 세계 인구의 성장

최근 인간 역사에서 무엇이 이토록 극적인 인구 증가를 일으키는가?

출처 : Based on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4)

그로부터 12년 후인 2011년 초에는 70억을 넘어섰다.

인구는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까?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인구는 2090년까지 100억 정도 될 것이고, 이후 안정화되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적 출생률 감소에 근거를 둔다. 세계 **총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여성 1인당 출생 수)은 현재 2.5명으로, 이는 안정된 인구의 출산합계율인 2.1명보다 실제로 더 높다. 그런데 총출산율은 지난 10년에 걸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2050년까지 2.1명으로 감소할 것이다(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4).

지금부터 2090년까지 전 세계의 인구 증가는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20% 이하를 구성하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와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 상태에 있는 나라 간의 냉혹한 ‘글로벌 인구학적 분리’가 있을 것이다(Kent & Haub, 2005). 다가올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인구 증가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대부분의 부유 국가는 출산율이 출산합계율보다 낮기 때문에 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상 여기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를 선진국(developed country)으로 지칭할 것이다. 선진국에 대한 구분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이다(OECD, 2014). (‘서구 국가’라는 용어는 때때로 대부분의 선진국을 지칭하는데, 이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서반구에 있기 때문이다.) 논의를 위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과 대비될 것인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는 덜 부유하지만 세계화된 경제에 참여함으로써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이 급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하루에 2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산다(UNDP, 2014). 인도 어린이의 약 절반이 저체중이며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World Bank, 2011). 중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이 절반 이하이다. 성인 여성의 절반 정도, 그리고 성인 남성의 약 4분의 3이 문맹이다. 주로 젊은이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대이동을 하지만, 아직 인도 인구의 약 3분의 2가 농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경제는 지난 20년간 활성화되고 있으며 수억 명의 인도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다(UNDP, 2014). 지금 인도는 제조, 통신, 서비스 업종에서 세계적 리더가 되고 있다. 현재 속도대로 계속 성장한다면 인도는 2050년에 이르면 경제 생산에서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다(Price Waterhouse Coopers, 2011). 인도인의 삶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오늘날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부모나 조부모들과는 매우 다른 경제적·문화적 맥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의 현재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13억 명이며,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82%에 해당하는 60억 명 정도이다(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4). 미국은 향후 수십 년간 인구의 감소보다는 증가가 예상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이다. 현재 미국 인구는 대략 3억 1,600만 명인데, 2050년까지는 4억 정도 될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은 지금부터 2050년까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하향 추세가 더 급격하여 현재 1억 2,000만 인구가 저출산율과 비이민 탓으로 2050년까지 9,700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4).

총출산율(TFR) 전집에서 한 여성이 낳는 아이의 수

선진국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달된 풍족한 나라로 수입과 교육 수준의 중앙값이 가장 높은 나라

개발도상국 선진국에 비해 수입과 교육 수준이 낮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

지금부터 2050년까지 거의 모든 세계 인구 증가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아래 사진은 인도 조드푸르의 사람들이 많은 거리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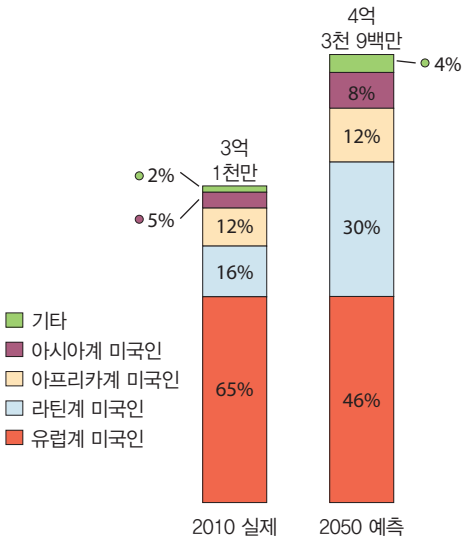


그림 1.2 2050년까지 미국 인구의 인종분포 변화 예측

앞으로 어느 인종 집단의 변화가 가장 크며, 왜 그럴까?
출처 : Based on Kaiser Family Foundation (2013)

미국이 대부분의 선진국과 다른 인구학적 방향을 따르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의 총출산율은 1.9명으로 합산출산율 2.1명보다 약간 낮지만, 여전히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더 높다(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4). 둘째, 보다 중요한 것으로 미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은 합법적 이민을 허용한다. 물론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도 많다(Suarez-Orozco, 2015). 지금부터 2050년까지 미국의 인구 증가는 전적으로 이민 덕분이라 하겠다(Martin & Midgley, 2010). 아시아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이민자가 들어오지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법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는 모두 주로 멕시코와 중남아메리카 출신이다. 따라서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50년까지 미국 인구에서 라틴계 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6%에서 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캐나다, 영국, 호주 역시 상대적으로 개방적 이민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예상되는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DeParle, 2010).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지금부터 2050년 사이에 발생할 거의 1억 명 이상의 이민자와 라틴계 인구 비율 30%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어떤 종류의 공공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

국가 간 다양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학적 프로파일을 문화적 가치, 수입, 교육의 관점에서 구분한다.

개인주의 독립성과 자기표현 등을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

10세까지 개발도상국의 많은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여기 카메룬에 사는 한 아동은 엄마가 밀가루 반죽 만드는 것을 돕고 있다.

나머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선진국이 지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인구뿐 아니라 수입과 교육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큰 차이가 발견된다(지도 1.1 참조). 수입과 관련해서 보면, 세계 인구의 약 40%는 하루에 2달러 이하로 살며, 세계 인구의 80%는 전체 가족 수입이 1년에 6,000달러 이하이다(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4). 대조적으로 선진국에 사는 10명 중 9명은 세계 수입 분포의 상위 20%에 속해 있다. 아프리카의 경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성장했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0; UNDP,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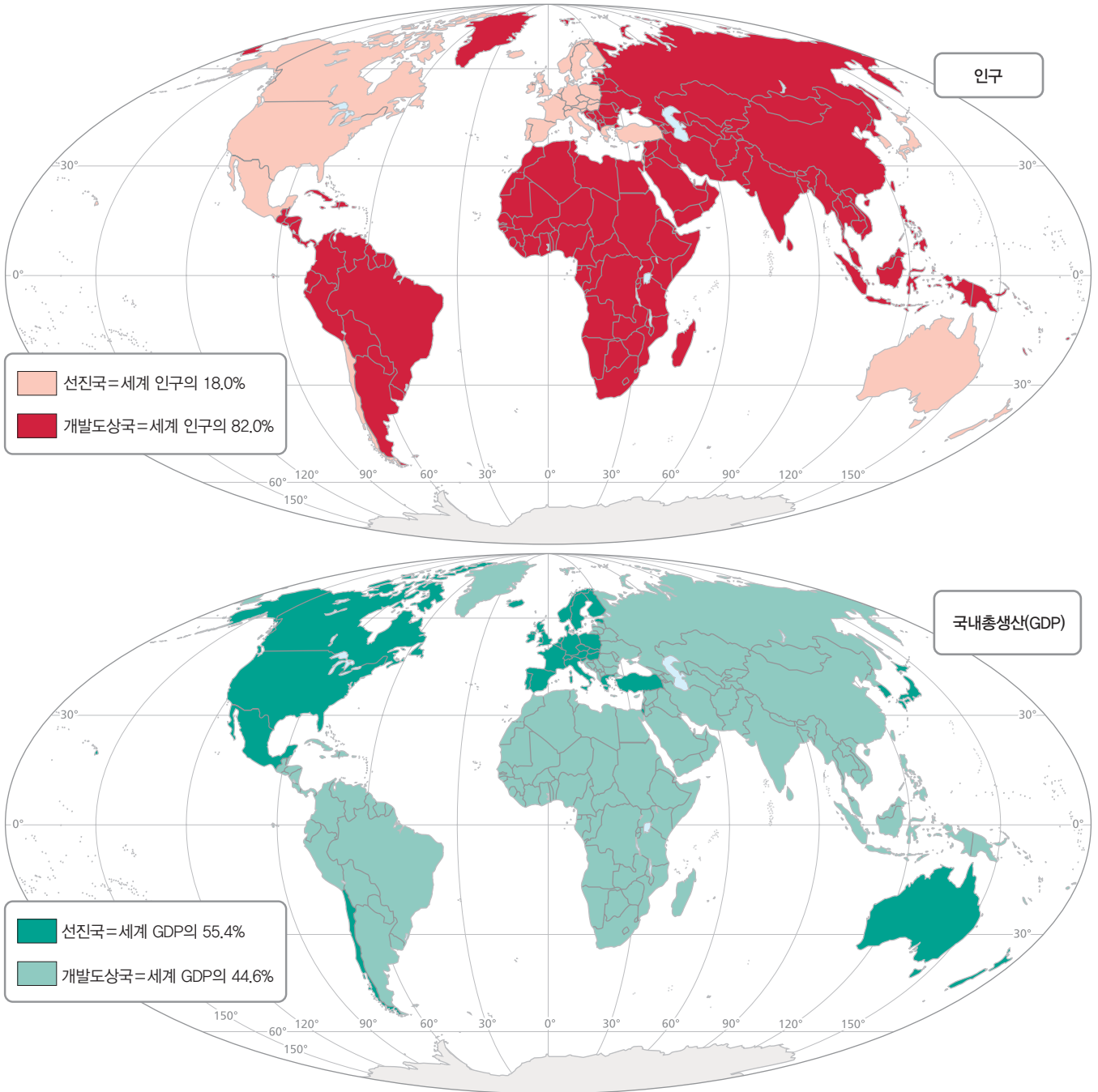
부유 국가와 빈곤 국가 간의 교육에도 유사한 차이는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면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모든 아동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으며, 그들의 약 50%가 3차 교육(대학 또는 중등교육 이후의 다른 직업훈련 등)을 받는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동의 약 20%가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하며, 이들의 50%만이 중등교육을 받는다(UNDP, 2014). 대학교육과 3차 교육은 부유한 엘리트만이 가능하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는 문화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선진국, 특히 서구 선진국의 문화는 독립성, 자기표현과 같은 개인주의(individualistic)가



치에 근거를 둔다는 것이다(Greenfield, 2005).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복종과 집단조화와 같은 집단주의 (collectivistic)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Sullivan & Cottone, 2010). 이 둘은 상호배타적 범주는 아니며, 각 국가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가치 간에 균형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는 다양한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국가도 있고 집단주의적인 국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전반적 구분은 인류 집단의 다양한 차이를 단순화된 구분으로 서술하는 데 유용하다.

집단주의 복종과 집단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



지도 1.1 인구와 수입 수준에서 세계의 차이

선진국은 세계 인구의 18%이지만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더 잘 산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재분류되려면 적절한 경제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전통 문화 개발도상국에서, 도시 사람에 비해 문화적 전통을 더 고수하는 농촌 문화

세계화 무역, 여행, 이민, 소통에서 세계의 여러 다른 지역들 간의 연결이 증가하는 것

개발도상국에서는 종종 도시와 농촌 간에 현격한 격차가 있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수입이 더 높고, 교육 수준도 더 높으며,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에 사는 중산층의 삶은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여러 면에서 선진국 사람들의 삶과 비슷하다(UNDP, 2014). 이 책에서 **전통 문화**(traditional culture)란 용어는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문화를 지칭하는 데 사용될 것인데, 이 문화는 도시에 비해 역사적 전통에 보다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전통 문화는 다른 문화에 비해 보다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이는 농촌에서는 종종 경제적 필요에 의해 타인과의 밀접한 연대가 있기 때문이다(Sullivan & Cottone, 2010).

오늘날의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프로파일은 인간발달을 이해하려면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 특히 심리학에서는 발달의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 문화가 무시되거나 배제되어왔다(Jensen, 2011; Rozin, 2006). 인간발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세계 인구 18%가 사는 선진국, 특히 세계 인구 5%에 해당하는 미국인의 삶에 관한 연구이다. 그 이유는 연구를 하는 데에는 돈이 필요하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Arnett, 2008). 그러나 최근 이런 흐름은 변하고 있으며, 심리학과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 인간발달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Jensen, 2015; Shweder, 2011). 점차 연구자들은 전 세계의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인간발달을 서술하고 있으며, 미국 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백인 중산층에는 보이지 않는 미국 내의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밖에 세계 인류의 나머지 95%가 있다는 자각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세계는 이미 50여 년 전 사회철학자 마셜 맥루한(McLuhan, 1960)이 예측했던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들이 무역, 여행, 이민, 소통을 통해 활발히 상호 연결되고 있음을 지칭한다(Arnett, 2002; Jensen et al., 2012; Hermans, 2015). 따라서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개인생활이나 직업생활 과정에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요양시설에서 일하게 된다면 아시아나 남아메리카 사람들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환자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요양 전문가를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이민 온 가족들이 있는 학생들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동료, 이웃, 심지어 친구와 가족까지도 매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이메일, 페이스북, 다른 소셜미디어, 유튜브, 그 외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해 여러분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접촉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발달에 관한 문화적 접근을 이해하는 것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유용하며, 다양하고 세계화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국가 내 다양성



‘사회경제적 수준(SES)’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SES, 성, 인종이 국가 내에서 왜 인간발달의 주요 측면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 책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를 구분하는 일반적 방식의 하나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자주 비교될 것이다. 그러나 각 국가 안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 주목해야만 한다. 모든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부유하지만 일본에서의 인간발달은 프랑스나 캐나다에서의 인간발달과는 매우 다르다. 모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덜 부유하지만 중국에서의 인간발달은 브라질이나 나이지리아에서의 인간발달과는 매우 다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란 큰 범주 안에서 인간발달의 변이를 탐색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각 국가 내에서 인간발달에서 중요한 변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 변이도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나름의 규범과 기준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며 정치·경제·지식·미디어의 권위를 지지하는 **다수 문화(majority culture)**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인종, 종교, 언어 그 밖의 다른 특성으로 규정되는 많은 소수 문화도 있을 수 있다.

인간발달에서 나타나는 변이 역시 국가 안에서 개인의 삶이 속해 있는 배경과 환경의 차이 탓으로 발생한다. 인간발달 경로 변이에 기여하는 배경과 환경을 **맥락(context)**이라 칭한다. 맥락에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문화와 같은 환경적 배경이 포함되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책에서 논의될 것이다. 맥락 이외에 변이에 기여하는 주목할 만한 세 가지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사회경제적 지위, 성, 그리고 민족성이다.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는 흔히 개인의 사회적 부류를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교육 수준, 수입 수준, 직업적 지위가 포함된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직 사회적 부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은 일반적으로 이들 부모의 교육, 수입, 직업 수준을 지칭하는 것이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SES는 인간발달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SES는 영아 사망의 위험에서부터 아동 교육의 질과 기간, 그리고 성인들의 직업 종류, 성인 후기 건강 보호를 받을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SES의 차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진다(UNDP, 2014).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같은 나라에서는 건강과 교육 같은 자원적 접근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최상위 엘리트가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대다수 구성원이 된다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런데 선진국에서조차 인간발달의 전 과정에서 자원에 접근하는 데 SES의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SES가 낮은 가정의 어머니는 임신 중 보살핌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영아사망률은 SES가 높은 가정보다는 SES가 낮은 가정에서 더 높다(Daniels et al., 2006).

모든 문화에서 성(姓)은 전 생애 발달에서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Carroll & Wolpe, 2005; UNDP, 2014).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대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는 것이 여러 문화에서 사실로 나타난다(Hatfield & Rapson, 2005). 그러나 기대의 정도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즉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직업을 갖고 동일한 옷을 입으며(예 : 티셔츠와 청바지) 동일한 여가활동을 즐긴다. 선진국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많은 다른 문화권에서 현격한 성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논하는 장을 배우게 되면 놀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진국에서도 성에 대한 특정 기대는 존재한다.

끝으로 **민족성(ethnicity)**은 인간발달에서 결정적인 한 부분이다. 민족성에는 문화적 기원, 문화적 전통, 인종, 종교, 언어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소수 민족 집단은 이민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민족 집단이 영구히 지속되고 다수 문화보다 시간적으로 더 앞서기까지 하는 나라도 있다. 최초의 유럽 이주자들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는 원주민이 오랜 세대 동안 호주에 살았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19세기 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적 힘으로 형성되었으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민족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다. 종종 특정 국가 내 소수 민족은 대다수의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 양상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주 문화에서는 혼전 성관계가 흔한 일이



한 나라 안에서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인간발달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맥락이다. 이 사진은 미국의 저소득 가정이다.

다수 문화 한 국가에서 규범과 기준의 대부분을 정하고 정치·경제·지적·미디어 권위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문화적 집단

맥락 사회경제적 지위, 성, 인종, 가족,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문화 등을 포함하여 인간발달의 다양한 경로에 기여하는 세팅과 환경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수입 수준, 직업적 지위가 포함된 개인의 사회적 계급

민족성 문화적 기원, 문화적 전통, 인종, 종교 및 언어와 같은 요소가 포함된 집단 정체감

개체발생적 한 종에서 개체발달의 특징적 양상

계통발생적 한 종의 전반적 발달에 관련된 것

자연선택 자신의 후손을 생산하는 데 가장 생존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게 되는 진화과정

인류의 조상 현대 인류가 나오게 된 진화적 라인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의 종

지만, 캐나다의 아시아 소수 집단에서는 결혼할 때까지 여성의 처녀성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Sears, 2012). 많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소수 민족 집단들이 다수 문화에 비해 덜 개인적이고 더 집단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Suarez-Orozco, 2015).

인간발달의 오늘과 그 기원 : 인류의 기원과 문화의 탄생

인간발달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이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인류도 하나의 종이다. 하나의 생물학적 기원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삶의 방식이 발달되었을까? **개체발생적(ontogenetic)** 발달로 칭해지는 개인의 발달에 주목하기 전에, 인류 종의 발달인 **계통발생적(phylogenetic)** 발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문화의 탄생과 오늘날의 개인 인간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기초로서 인류의 진화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진화론에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학생들에게 이 부분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과 이를 지지하는 증거에 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론은 실제로 모든 과학자들이 수용하는 인류 기원에 대한 관점이다.

우리의 진화적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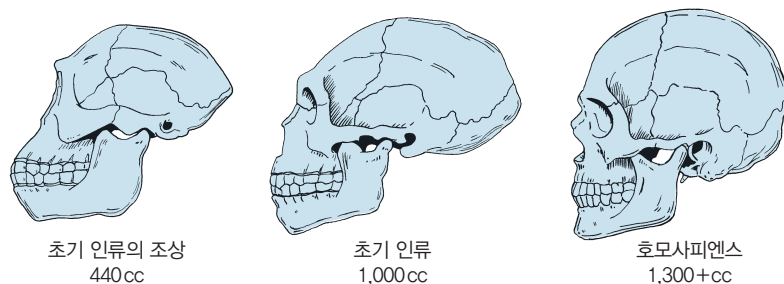


자연선택 과정과 인류의 진화적 기원을 설명한다.

인류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1859년 찰스 다윈이 그의 저서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에서 최초로 제안했던 진화론의 몇 가지 기본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론의 핵심은 종이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 과정을 통해 변화한다는 것이다. 자연선택에서 모든 종의 새끼는 다양한 특성에서 매우 넓은 범위의 변이를 갖고 태어난다. 일부는 상대적으로 크고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며, 일부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다. 어린 새끼 중 재생산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는 자기 환경에 최적으로 적응된 변이를 가진 개체일 것이다.

인류 진화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진화 생물학자에 따르면 인간, 침팬지 그리고 고릴라는 600~800만 년 전에는 공동의 영장류 조상을 가졌다(Shreeve, 2010). 그 무렵, 이 공동 조상은 침팬지와 고릴라 그리고 인간발달의 세 가지 길로 나누어졌다. 인간 쪽으로 오게 된 진화의 길이 **인류의 조상(hominid)**이다. 침팬지, 고릴라와 공유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 살았다. 침팬지, 고릴라가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듯 초기 인류의 조상 역시 아프리카에서 살았다.

20만 년 전까지 초기 인류의 조상은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로 진화하였다(Shreeve, 2011; Wilson,



초기 인류의 조상
440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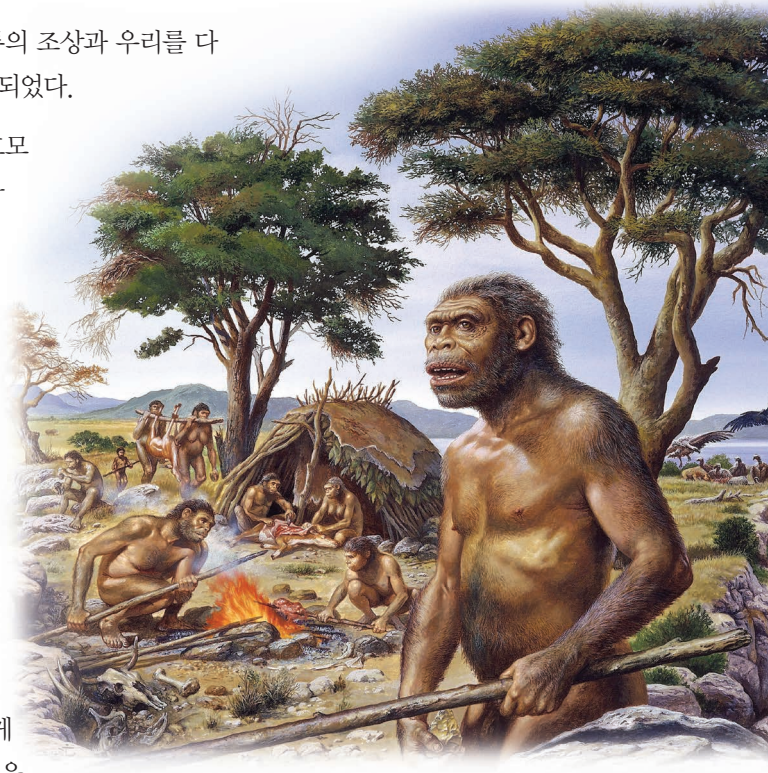
초기 인류
1,000cc

호모사피엔스
1,300+cc

그림 1.3 초기 인류에서 뇌의 크기 변화

2012). 호모사피엔스로 이끈 수백만 년의 진화 기간 동안 초기 인류의 조상과 우리를 다른 영장류와 구분 지을 수 있게 하는 다음의 여러 가지 특성이 발달되었다.

1. 커진 뇌 이 기간 동안 일어난 가장 혁혁하고 중요한 변화는 호모사피엔스의 뇌 크기였는데, 초기 인류의 뇌의 2배 정도 되었다 (그림 1.3 참조; 뇌 크기는 세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나 있다).
2. 여성의 넓어진 골반 여성 인류의 골반은 보다 머리가 큰 아이를 낳기 위해 더 넓어졌다.
3. 길어진 의존성 초기 인류의 뇌가 커진 것은 인류의 조상에 비해 보다 덜 성숙하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영아기와 아동기의 의존성이 길어진다.
4. 도구의 발달 도구의 발명은 초기 인류가 음식을 더 잘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가장 초창기의 도구는 하나의 돌을 다른 돌에 부딪혀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도구는 동물의 고기를 자르거나 나무로 사냥을 위한 날카로운 막대기를 만드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5. 불 다루기 불을 다루는 능력은 초기 인류로 하여금 요리를 하게 만들었는데, 요리된 음식은 날 음식에 비해 신체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뇌를 크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Wrangham, 2009). 동시에 치아와 턱의 크기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요리된 음식이 날 음식에 비해 먹기가 훨씬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



초기 '인류'는 불을 지배함으로써 뇌의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영아기 의존성이 길어짐으로써 초기 인류 어머니들은 멀리 여행 가지 못하였고, 사냥이나 수렵을 하는 남성들을 따라가기 어렵게 되었다(Wrangham, 2009). 그래서 수렵채집(hunter-gatherer)의 삶의 방식이 발달하였는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집에 머물러 아이들을 돌보고 주변에서 먹을 만한 식물을 모으는 반면, 남성은 사냥이나 먹이를 찾기 위해 바깥으로 이동하였다.

문화와 문명의 기원

학습목표 1.5 상부 구석기 시대 이후 인간 문화의 주요 변화를 요약한다.

신체적으로 보면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인간종의 발달에서 극적인 변화는 4만 년부터 약 1만 년 전에 해당되는 상부 구석기 시대(Upper Paleolithic period)에 일어났다(Ember et al., 2011; Wilson, 2012)(그림 1.4 참조).

처음으로 예술이 등장했다. 악기, 동굴 벽화, 옷에 부착된 작은 상아 구슬, 뼈, 뿔, 또는 조개로 만든 장식품, 상아로 조각되거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동물 형상 등이 그것이다.

예술적 산물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함께 다음의 몇 가지 다른 중요한 변화가 상부 구석기 시대에 나타났다.

- 인류는 시신을 묻기 시작했다. 때로는 무덤에 예술품이 함께 묻혔다.
- 처음으로 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가 발달하였는데, 이는 그 집단의 예술과 도구에서의 차이를 반영한다.
- 집단 간에 무역이 발생하였다.

수렵채집 사냥하고(주로 남성이 담당)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채집(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것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시스템

상부 구석기 시대 4만 년에서 1만 년 전에 해당되는 시기로, 분명한 인간 문화가 처음으로 발달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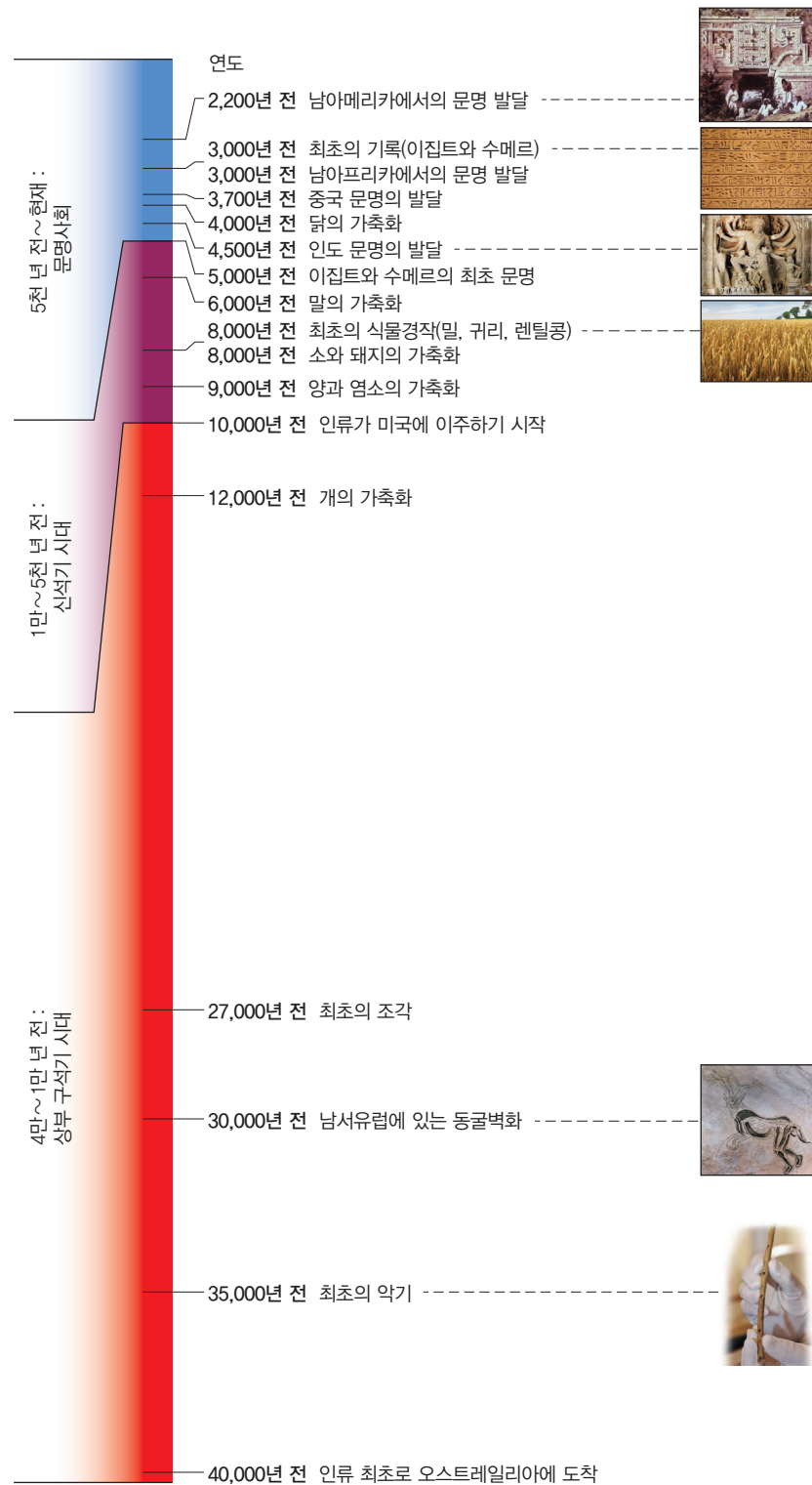


그림 1.4 지난 4만 년 동안 인간종 발달에서의 핵심 변화

- 활과 화살을 포함하여 도구의 발달에 급격한 가속화가 있었다. 여기에는 동물(또는 인간의 적)을 향해 던지는 창, 물고기를 잡기 위한 창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최초의 배가 발명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은 호주와 뉴기니아에 도착하여 인구가 증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뇌와 몸에서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부 구석기 시대에 왜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는가?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최초로 언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Diamond, 1992; Leakey, 1994). 말하는 언어 능력에 대한 해부학적 증거는 적어도 30만 년 전이다(Wrangham, 2009).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상부 구석기 시대에 일어난 혁명적 변화의 기원은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극적인 변화의 다음 시기는 1만~5,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Neolithic period)로 알려져 있다(Johnson, 2005). 이 시기 동안 인간은 식물을 경작하고 동물을 길들임으로써 자신들의 식량을 확장하였다. 이 진전에 기여한 핵심 요인은 기후 변화였다. 상부 구석기 시대는 마지막 빙하기였다. 세계의 평균 기온이 약 섭씨 10도(화씨 50도)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기온보다 낮은 것이다. 유럽은 오늘날 베를린이 위치하는 지점부터 남쪽까지 빙하에 덮여 있었고, 미국은 지금의 시카고 위도까지 빙하에 덮여 있었다. 신석기 시대에 이르면서 기후는 훨씬 더 따뜻해져 오늘날의 기후와 유사해졌다.

기후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인간의 식량 자원으로 좋은 새로운 식물이 발달하였고,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상부 구석기 시대에 사냥의 대상이었던 큰 동물은 사라졌는데, 과도한 사냥 또는 이 동물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을 멸종의 이유로 본다(Diamond, 1992). 동물의 가축화는 사라진 동물을 대신하여 식량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달했을 수 있다. 농업과 동물 관리를 따라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졌다. 식물을 음식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절구와 막사발, 옷을 만들기 위한 목화와 울을 짜는 방추체와 베틀이 그것이다. 사람들이 식물과 동물을 기르기 위해 안정된 지역사회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보다 크고 견고한 주택(그리고 침대와 식탁 같은 가구)이 만들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방식의 근거를 제공하는 주된 역사적 변화는 **문명사회(civilization)**의 발달과 함께 약 5,000년 전에 시작하였다(Ridley, 2010). 문명사회를 나타내는 특징에는 도시의 형성, 기록, 다양한 종류의 일의 분화, 부와 지위에서의 차별, 그리고 **국가(state)**라고 알려진 중앙집권화된 정치적 시스템이 포함된다. 최초의 문명은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와 수메르(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발달하였다. 이 문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기록물을 유지하고 많은 물건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정보가 많다.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 그 사람들은 법과 하수관 시스템을 갖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위에는 성직자, 군인, 공예가, 정부 행정관, 그리고 노예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지도자들을 기념하는 건축물을 건설하였다. 또한 보석, 조각품, 보트, 바퀴 달린 마차, 칼 등을 포함하여 엄청난 양의 방대한 물건들을 생산하였다. 이후의 문명은 인도(4,500년 전), 중국(약 3,700년 전), 남부 아프리카(약 3,000년 전), 지중해 지역(그리스와 로마, 약 2,700년 전), 그리고 남아메리카(약 2,200년 전)에서 발달하였다.

왜 문명과 국가가 발생했는가? 관개시설의 발명 후 농산물의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 문화 집단의 모든 사람이 식량 생산을 위해 일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집단의 일부 사람들은 식량 생산 지역에서 벗어나 도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결과 도시에는 상인, 예술가, 음악가, 관료, 종교와 정치적 지도자 등 다양한 직종이 특화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관개시설이 확장됨에 따라 국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하려는 욕구가 생겼고, 무역이 확장됨에 따라 도로와 같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욕구가 일었다. 또한 무역은 공동 국가로 연합될 수 있는 보다 큰 문화 집단 속에서 사람들을 연결시켰다(Ridley, 2010).

신석기 시대 1만 년에서 5,000년 전의 인간 시대로, 동물과 식물이 처음으로 길들여진 시기

문명사회 약 5000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도시, 기록, 직업의 분화, 국가가 포함된 인간의 사회적 삶의 형태

국가 문명화의 필수적인 특성으로, 중앙집권화된 정치 시스템

인간의 진화와 오늘날의 인간발달



인간 진화에 관한 정보를 오늘날 인간발달이 일어나는 방식에 적용한다.

한 종으로서 인간발달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발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첫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진화적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에 비해 큰 뇌, 성장하기까지 성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비교적 장기간의 아동기, 사회적 집단에서의 협동적 삶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류의 친척이나 조상과 많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진화심리학(evolutionary psychology) 분야의 연구자들은 공격성과 배우자 선택 같은 인간발달의 많은 다른 특성들도 진화적 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Crawford & Krebs, 2008).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인간의 진화 역사에 관해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약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기원 이래 생물학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변해왔다(Ridley, 2010; Wilson, 2012)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아프리카의 초원과 숲에서 기원한 한 종이지만, 지금은 산악에서부터 사막, 열대 정글, 극지에 이르기까지 지구 상의 모든 환경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몇십 명의 소수의 작은 집단에서 진화한 종이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수백만 명의 타인과 도시에서 산다. 오랜 역사에서 여성은 가임기에 적어도 8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통 하나 아니면 둘, 또는 세 명의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아예 낳지 않기도 한다.

아프리카에서 기원하여 자연선택을 통해 수렵채집 방식으로 적응된 우리 인류 같은 동물이 지난 4만 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수렵채집 문화와는 전혀 닮지 않은 확연히 다른 문화로 발달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주목할 만하다. 인간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큰 뇌가 발달되면서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자연선택만이 아니었다. 그 대신 우리는 문화를 창조하였다. 화석으로부터 알 수 있듯 모든 초기 인류의 조상은 동일한 방식으로 살았다(Shreeve, 2010). 초기의 다양한 호모사피엔스조차 상부 구석기 시대 전에는 소규모 집단을 이루며 사냥꾼 또는 채집인으로서 비슷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인간 공동체의 일부이지만 각기 고유한 삶의 방식을 지닌 수백 개의 상이한 문화를 가진 존재들이다. 영아 양육 방식, 아동에 대한 기대, 사춘기 변화를 대하는 방식, 노인을 존중하는 방식 등 우리가 사는 방식에는 매우 다양한 문화가 있다. 호모사피엔스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유사한 생물학적 특성을 공유하지만, 문화는 생물학적 원재료를 전 생애에 걸쳐 매우 상이한 길로 가도록 만든다.

우리를 한 종으로서 고유하게 만드는 것도 문화이다. 다른 동물들은 특정 환경 조건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동물들은 각 개체의 생애 동안 학습할 수 있지만 학습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자신의 환경이 변할 때 특정 개체가 생존하려면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새로운 환경 조건에 유전적으로 가장 적합한 개체로 오래 생존하여 재생산할 수 있게 되는 자연선택 과정을 통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개체들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일단 지금처럼 인간의 뇌가 발달되면,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발명하고 학습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 삶에 대한 문화적 방식의 일부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진화적 적응 환경과 매우 다른 조건에서도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의 문화적 학습 역량이 커서 상대적으로 본능에 의해 고정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진화심리학 인간 기능과 행동 양상이 어떻게 해서 진화적 조건에 대한 적응으로부터 나오는지를 고찰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

2절 인간발달의 이론



학습목표

- 1.7 전 생애 발달에 관한 세 가지 고대의 개념을 비교하여 대비한다.
- 1.8 프로이트의 인간발달에 관한 심리성적 이론을 요약하고, 이론의 한계점을 서술한다.
- 1.9 에릭슨의 인간발달에 관한 심리사회적 8단계 이론을 서술한다.
- 1.10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의 다섯 가지 시스템을 규정하고, 단계 이론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 1.11 이 책의 구조가 될 문화-발달 모델을 요약하고 새로운 인생 단계로 떠오르는 성인진입기 단계를 서술한다.

인간발달의 이론 : 고대의 개념



학습목표 1.7 전 생애 발달에 관한 세 가지 고대의 개념을 비교하여 대비한다.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서 인간발달은 아직 역사가 짧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 생애에 걸쳐 연령에 따라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해 생각해왔다. 이 절에서는 인간발달을 개념화하는 고대의 세 가지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그림 1.5 참조). 이 개념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세 가지 개념 모두 남성에게 의해 남성들만을 위해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발달의 개념에 여성이 빠져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 문화에서 남성이 힘의 대부분을 갖고 있고, 인생 단계 개념을 안내하는 종교적 지도력과 철학과 같은 영역에서 여성이 배제되어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아마도 인생 과정에 대한 가장 오래된 개념은 약 3,000년 전에 쓰인 힌두교 성전인 다르마샤스트라(Dharmashastras)에 제시된 내용일 것이다(Kakar, 1998; Rose, 2004). 이 개념에서는 남성의 생애에 관한 네 단계가 있는데, 이상적 나이를 100세로 할 때 각 단계는 약 25년씩 지속된다.

견습생 : 0~25세

세대주 : 26~50세

숲속 거주자 : 51~75세

은둔자 : 75~100세

견습생 단계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포함한다. 이 단계는 소년이 성장하여 성인기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되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단계이다. 세대주 단계에서 젊은 남성은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떠맡는다. 이 단계는 아내와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노부모를 보살피며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 등 많은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인 숲속 거주자는 남성의 첫 손자가 태어나면서 시작한다. 이 단계의 이상향은 남성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글자 그대로 숲속에 살면서 기도와 종교 연구에 몰두하며 아내와 자비심을 함양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실제로 숲속으로 물러나는 힌두인은 거의 없다. 이 단계의 사람에게 사람들은 사회 속에 머무르면서도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물러나기를 기대한다. 이는 성생활의 종말, 일에 대한 책임감의 감소, 세대주로서의 책임감이 가정의 아들로 전이됨의 시작을 의미한다.

생의 마지막 단계는 은둔자의 시기이다. 은둔자 단계는 세상과의 애착을 거부하는 데 있어 숲속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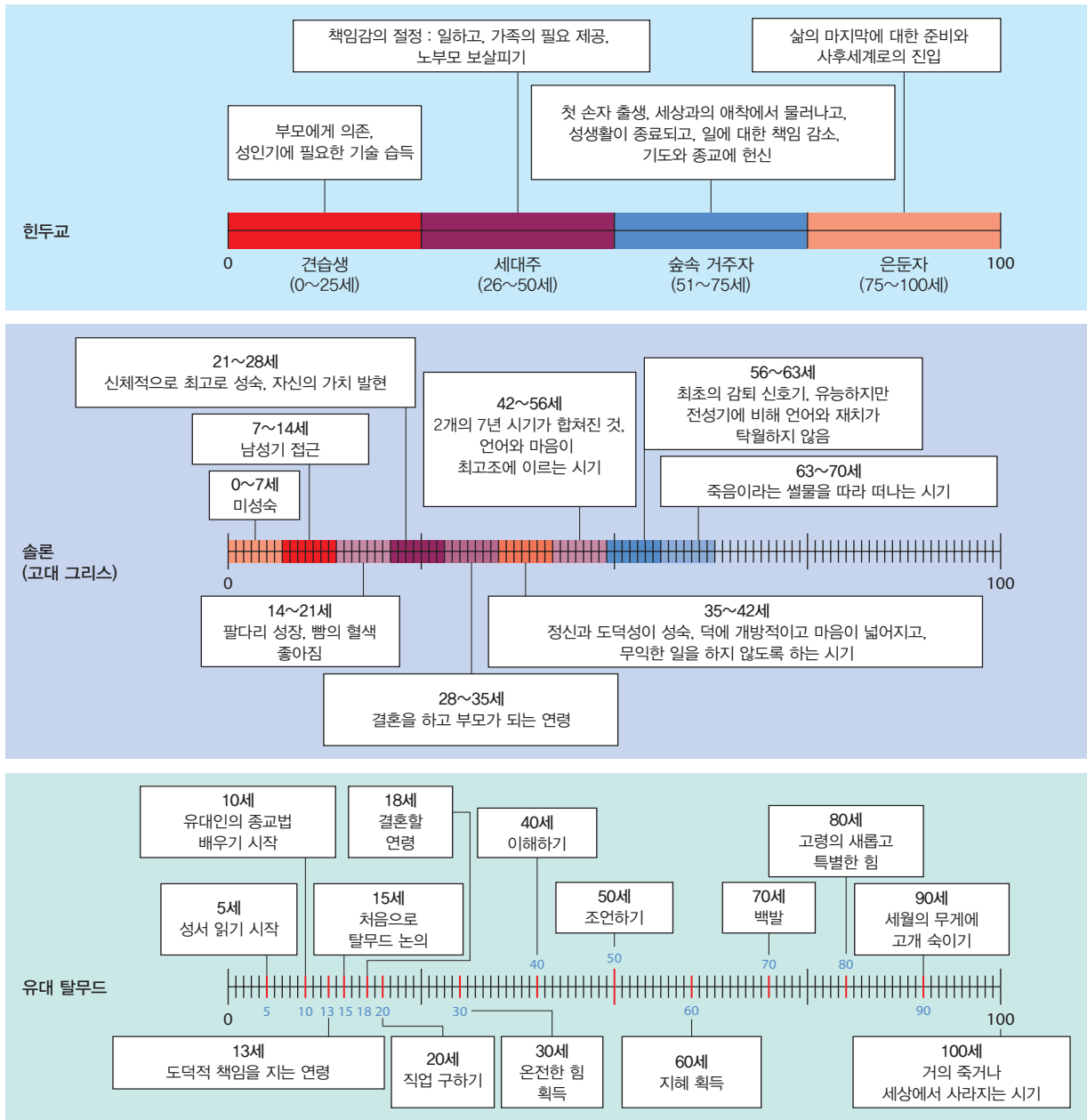


그림 1.5 세 가지 전통에서 본 인생 과정

자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다. 이 단계에서 삶의 목적은 삶의 마지막에 대한 준비와 사후 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것이다(힌두교인은 환생을 믿는다). 이 단계는 75세에 시작하는데, 다르마샤스트라가 쓰였던 수 천 년 전에는 이 나이에 도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지금은 그 나이에 도달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남은 삶의 시기가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생 단계에 대한 다른 개념은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솔론에 의해 제안되었다(Levinson, 1978). 솔론에게는 전 생애를 출생부터 70세까지 7년 단위로 구분한 열 가지 단계가 있다(Levinson, 1976, p. 326).

0~7세 : '성숙하지 않은' 단계

7~14세 : '싹을 틔우는' 남성기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는 단계

14~21세 : 팔다리가 자라고 턱을 만지면 양털처럼 폭신하고 뺨의 혈색이 좋아진다.

21~28세 : 이제 젊은이는 신체적으로 '최고로 성숙해지며', '자신의 가치가 명백해진다.'

28~35세 :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 연령으로, '이 시기가 배우자를 구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며, 자녀를 낳고 자신의 혈통을 보존'하고자 생각한다.

35~42세 : 정신과 도덕성이 성숙되는 시기로, 이 시기는 '턱이 개방적으로 확장되며 무익한 행위를 하도록 결코 부추기지 않는' 시기이다.

42~56세 : 이 시기에는 7년 시기 2개가 합쳐진 시기로, '14년 동안 언어와 마음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다.

56~63세 : 최초의 감퇴 신호기로, '유능하지만, 자신의 전성기만큼 재치와 언어가 민첩하지 않다.'

63~70세 : 생의 종말 시기로, 이 시점에서 사람은 '죽음이라는 썰물에 따라 떠나야 한다.'

생애 과정에 관한 세 번째 고대 개념은 약 1,500년 전에 쓰인 유대인의 성서 탈무드에서 나온다(Levinson, 1978). 힌두교의 다르마샤스트라처럼, 탈무드에서 인생 과정은 100세까지 보다 작은 단위로 서술되어 있다.

5세는 성서를 읽기 시작하는 연령이다.

10세는 유대인의 종교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13세는 도덕적 책임을 지는 나이로, 소년이 성년식을 하게 되면 이제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종교적 계율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15세는 처음으로 탈무드를 토론할 수 있다.

18세는 결혼을 할 연령이다.

20세는 직업을 구하는 연령이다.

30세는 온전한 힘을 획득하는 연령이다.

40세는 이해하는 연령이다.

50세는 조언을 하는 연령이다.

60세는 노인이 되어 지혜를 얻는 연령이다.

70세는 머리가 희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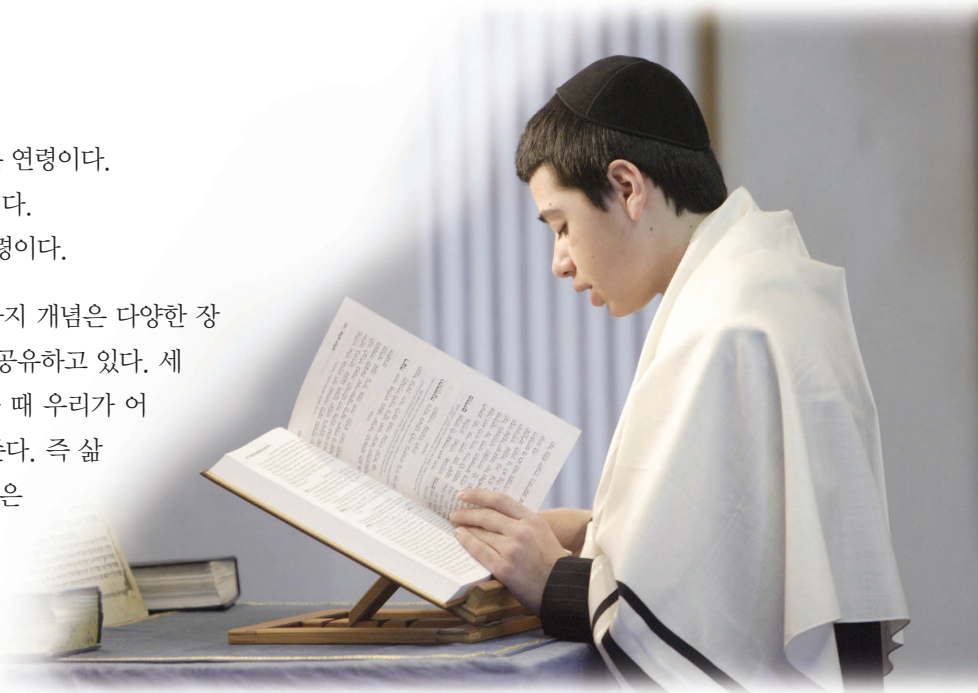
80세는 고령의 새롭고 특별한 힘에 도달하는 연령이다.

90세는 세월의 무게에 고개를 숙이는 연령이다.

100세는 고인이 되어 세상에서 사라지는 연령이다.

조금 전에 언급된 인간발달에 관한 이 세 가지 개념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쓰였지만, 어떤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세 개념 모두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관한 이상적 상태를 보여준다. 즉 삶에 대한 준비는 청년기에 이루어지며, 전문성은 성인기에 획득되고, 지혜와 평화는 노년기의 열매이다. 세 개념 모두 청년기를 미성숙의 시기로, 성인기는 가장 책임감이 높고 최고의 생산성을 내는 시기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유대인의 신성한 책 탈무드에 따른 인생 과정에서 13세는 도덕적 책임을 지는 나이이다.



막 단계는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로 본다. 이 개념들은 개인이 노년기까지 산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데, 이는 아주 최근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발달에 관한 이 세 가지 고대 개념 간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이 개념들이 인생 간격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나눈다는 것인데, 다르마사스트라에서는 네 단계로 나누는다면 탈무드에서는 14단계로 나눈다. 이는 곤충이 애벌레, 유충, 성충의 단계를 거치는 방식처럼 인간에게서 전체 인생 단계는 명확하고 분명한 생물학적 특성으로, 실제로 잘 구분이 되지 않음을 알려준다. 인간발달에 관한 개념은 부분적으로만 생물학적이며(견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영아기, 사춘기를 경험하는 청소년기) 이외에 문화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 근거를 둔다.

인간발달의 이론 : 과학적 개념

인간발달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12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 동안 인간발달에 관한 세 가지의 주요 개념화가 이루어졌다. 심리성적 접근, 심리사회적 접근, 생태학적 접근이 그것이다.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



프로이트의 인간발달에 관한 심리성적 이론을 요약하고, 이론의 한계점을 서술한다.

인간발달에 관한 최초의 과학적 이론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에 의해 제안되었다. 프로이트는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정신과 의사였다(Breger, 2000).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프로이트는 여러 환자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가 아동기에 겪은 외상경험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외상은 자신의 무의식에 묻히게 되고, 이후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할 수 없을 때조차 계속해서 개인의 성격과 정신 기능에 영향을 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이라 명명한 최초 정신치료의 한 가지 방법을 개발하였다. 정신분석학의 목적은 정신분석학자에 의해 주도되는 환자의 꿈과 아동기 경험에 관해 토론함으로써 환자의 무의식에 있는 억압된 기억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억압된 기억을 단지 의식화하는 것만으로 환자를 치유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로서 프로이트의 경험은 심리성적 이론(psychosexual theory)의 기초였다. 그는 성적 욕구가 인간발달 기저에 깔려 있는 원동력을 제안하였다. 성적 욕구는 프로이트가 원초아(id)라 칭하는 마음의 부분에서 발생하고 쾌락 원리에 근거하여 작동하는데, 이는 원초아가 끊임없이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초기 아동기부터 성인은 아동의 욕구 만족을 제한하고 자신의 불복종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양심 또는 초자아(superego)가 발달하도록 가르친다. 초자아가 발달하면서 원초아와 초자아를 중재하는 자아(ego)도 발달한다.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데, 자아는 아동으로 하여금 초자아가 부여한 제약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도록 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발달에서 중요한 모든 것은 성인기 전에 발생한다. 실제로 프로이트는 성격은 6세 전에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프로이트 이론에서 성적 욕구는 전 생애를 통해 인간발달의 원동력이 되지만, 성적 욕구의 소재는 초기 발달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이동한다(표 1.1 참조). 영아기는 구강기로, 성적 감각이 입에 집중되어 있다. 영아는 빨기, 씹기, 깨물기로부터 쾌감을 얻는다. 다음 단계는 1세 6개월에 시작하는 항문기로, 성적 감각이 항문에 집중된다. 걸음마기 아이들은 배설 행위로 최대의 쾌감을 얻고 배설물에 매료된다. 3세부터 6세까지의 남근기는 프로이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심리성적 이론 성적 욕구가 인간발달에 기저하는 원동력을 제안하는 프로이트의 이론

표 1.1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단계

연령 시기	심리성적 단계	주요 특징
영아기	구강기	성적 쾌감이 입에 집중. 빨기, 씹기, 깨물기로부터 쾌락을 얻음
걸음마기	항문기	성적 쾌감이 항문에 집중. 배설물에 높은 관심. 배설로부터 쾌락을 얻음
초기 아동기	남근기	성적 쾌감이 성기로 옮겨감. 이성 부모를 향한 성적 욕망과 동성 부모에 대한 두려움
중기 아동기	잠복기	성적 욕망이 억압.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초점
청소년기	성기기	성적 욕구의 재출현. 가족 바깥으로 관심이 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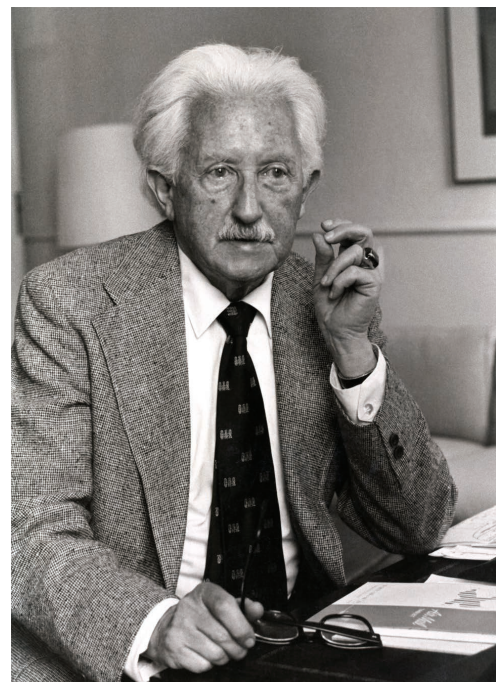
이 단계에서 성적 흥분은 성기에 있으며, 아동의 성적 욕구는 이성 부모에게 집중된다. 프로이트는 유명한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 오이디푸스가 했던 것처럼 모든 아동은 동성 부모 대신에 이성 부모에게로 성적 접근을 즐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경험한다고 제안하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동성의 부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처벌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 성적 욕구를 포기하고, 동성 부모와 동일시하여 그와 보다 유사하게 됨으로써 해결된다.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이 단계를 거쳐 심리성적 발달의 네 번째 단계인 잠복기로 나아가는데, 이 단계는 약 6세부터 시작하여 사춘기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은 성적 욕구를 억제하며 이 욕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회적 기술과 지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집중한다.

프로이트 이론의 마지막이자 다섯 번째 단계는 성기기로, 사춘기 이후에 나타난다. 성적 충동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는 초자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심리성적 이론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Breger, 2000). 인간발달에서 성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인간 행동은 복잡하여 단일 동기로 환원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생의 초기 6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프로이트는 결코 아동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의 아동관은 정신분석을 받기 위해 내담한 환자들, 주로 비엔나의 상류 사회 여성들의 회고에 근거하고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심리성적 이론은 소년의 발달을 중시하고 소녀의 발달은 무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은 20세기 전반 내내 인간발달을 보는 지배적 관점이었다(Robins et al., 1999). 오늘날 인간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에 집착하는 학자는 거의 없는데, 심지어 정신분석학자들마저도 그렇다(Grunbaum, 2006).

에릭 에릭슨은 인간발달의 전 생애 이론을 제안한 최초의 사람이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에릭슨의 인간발달에 관한 심리사회적 8단계 이론을 서술한다.

반 세기 이상 심리학계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이 지배적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간발달의 기초로서 성적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이를 반대한 학자들 중의 한 사람이 에릭 에릭슨(Erik Erikson, 1902~1994)이다. 에릭슨은 비엔나에서 프로이트 학파에서 정신분석학자로 훈련을 받았지만,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에릭슨은 프로이트 이론과

심리사회적 이론 인간발달은 사회와 문화 및 환경을 통합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이끌려간다는 에릭슨의 이론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는 발달 이론을 제안하였다. 첫째, 에릭슨의 이론은 심리사회적 이론(psychosocial theory)이었는데, 이는 발달에 깔려 있는 원동력은 성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및 환경을 통합하려는 욕구라는 것이었다. 둘째, 에릭슨은 발달이 프로이트 이론에서처럼 생의 초기 몇 년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에릭슨(Erikson, 1950)은 여덟 가지 발달 단계를 제안하였다(그림 1.6 참조). 각 단계는 그 단계에서 개인이 해결해야만 하는 고유한 발달적 도전 또는 위기로 규정된다. 위기의 성공적 해결은 발달의 다음 단계를 잘 나아가도록 준비하게 한다. 그리고 어느 한 단계의 위기를 잘 해결하지 못한 개인은 다음 단계의 위기도 잘 해결하지 못할 상당한 위험을 안고 다음 단계에 들어간다. 단계는 서로서로 영향을 주는데, 한 단계가 좋으면 다음 단계도 좋고, 한 단계가 나쁘면 다음 단계도 나빠진다.

생의 첫 단계인 영아기의 발달적 도전은 신뢰 대 불신이다. 영아가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으면, 세상

은 좋은 곳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기본 신뢰감이 발달한다. 반대로 영아기에 사랑받지 못하면, 아동은 타인을 불신하고 삶이 좋을 것이라는 것에 회의를 갖게 된다.

두 번째 단계인 걸음마기의 발달적 도전은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이다. 이 단계 동안 아동에게 자신이 타인과 구분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발달한다. 아동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면 건강한 자율감이 발달한다. 그러나 지나친 제한이나 처벌이 있으면 아동은 수치심과 회의감을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인 초기 아동기 동안의 발달적 도전은 주도성 대 죄책감이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목적 지향 방식으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능력이 격려받으면 주도성이 발달하지만, 격려받지 못하고 매몰차게 대우받으면 아동은 죄책감을 느낀다.

중기 아동기에서 후기 아동기까지의 네 번째 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세상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다. 아동이 격려받고 잘 배우게 되면, 배우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갖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등의 근면성이 발달한다. 반면에 요구되는 학습을 잘하지 못하는 아동은 열등감을 느끼기 쉽다.

다섯 번째 단계는 청소년기로 발달적 도전은 정체감 형성 대 정체감 혼미이다. 청소년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소속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체감 혼미가 발생한다.

여섯 번째 단계인 친밀감 대 고립은 성인 초기에 일어난다. 이 단계에서 초기 성인에게 일반적으로 결혼이라는 친밀 관계에 관여함으로써 새롭게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도전이 있다. 친밀 관계를 형성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고립된다.

성인 중기의 일곱 번째 단계로 생성감 대 침체라는 도전이 있다.



영아기 :
신뢰 대 불신
주된 발달적 도전은 신뢰하는 양육자와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청소년기 :
정체감 형성 대 정체감 혼미
주된 발달적 도전은 안정되고 응집력 있는 정체감을 개발하는 것이다.



걸음마기 :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
주된 발달적 도전은 자신을 타인과 구분되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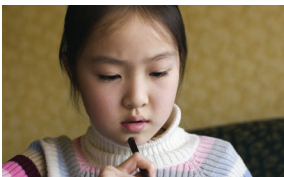
성인 초기 :
친밀감 대 고립
주된 발달적 도전은 헌신된 장기적 사랑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초기 아동기 :
주도성 대 죄책감
주된 발달적 도전은 목적 지향 방식으로 활동을 주도하는 것이다.



성인 중기 :
생성감 대 침체
주된 발달적 도전은 타인을 보살피고 젊은 세대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이다.



중기 아동기 :
근면성 대 열등감
주된 발달적 도전은 해당 문화의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다.



성인 후기 :
자아통합감 대 절망
주된 발달적 도전은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림 1.6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8단계

성인 중기에 생산적인 사람은 타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거나 보살핌을 통해 다음 세대의 웰빙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초점을 둔다. 반대로 중년기에 자신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침체 상태에 있게 된다.

성인 후기인 여덟 번째 단계에서 도전은 자아통합감 대 절망이다. 이 단계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돌아보고 회고하는 단계이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수용하고 인생을 대체로 잘 보냈다고 결론짓는 사람은 자아통합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이 단계에서 삶에 대한 후회와 억울함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망을 경험한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은 프로이트 이론보다 더 지지를 받아왔다. 오늘날 인간발달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발달이 평생 지속되며, 전 생애 동안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Baltes, 2006; Lerner, 2006; Jensen, 2015). 마찬가지로 오늘날 인간발달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발달의 사회적·문화적 기초를 중시하는 에릭슨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에릭슨이 제안한 생애의 모든 단계가 타당하거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는 것은 주로 청소년기의 정체감과 성인 중기의 생성감에 대한 에릭슨의 견해이다(Clark, 2010).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인간발달에 관한 프로이트와 에릭슨의 이론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의 다섯 가지 시스템을 규정하고, 단계 이론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인간발달에 관한 최근의 중요한 한 이론이 유리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ecological theory)**이다(Bronfenbrenner, 1980; 1998; 2000; 2005). 브론펜브레너의 이론은 인간발달 단계에 초점을 둔 프로이트와 에릭슨이 제안하는 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브론펜브레너의 이론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인간발달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중 요인에 초점을 둔다.

브론펜브레너는 발달심리학에서 직접적 환경, 특히 어머니-아동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는 이론을 제안하였다. 브론펜브레너는 발달에는 직접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동발달에 더 많은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였다. 브론펜브레너의 이론은 발달하면서 경험하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환경과 개인 환경의 다양한 수준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제안된 것이었다. 후기 저서(Bronfenbrenner, 2000, 2005; Bronfenbrenner & Morris, 1998)에서 브론펜브레너는 그의 이론 체계에 생물학적 차원을 추가하여, 현재는 생물생태학적 이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기여하는 고유한 측면은 발달에서 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브론펜브레너에 따르면, 인간발달에는 다섯 가지 핵심 수준 또는 시스템이 기여한다(그림 1.7 참조).

1. 미시체계는 직접적 환경, 즉 사람들이 일상적 삶에서 경험하는 환경을 칭하는 브론펜브레너의 용어이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미시체계에는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확대가족과의 관계, 또래나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다른 성인(코치, 종교 지도자, 고용주 등)과의 관계가 포함된다. 브론펜브레너는 이 미시체계에서 아동이 능동적 주체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아동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아동의 행동 역시 부모에게 영향을 준다. 아동은 친구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누구를

생태학적 이론 브론펜브레너의 이론으로, 인간발달은 사회환경 속에서 상호 연결된 다섯 가지 시스템의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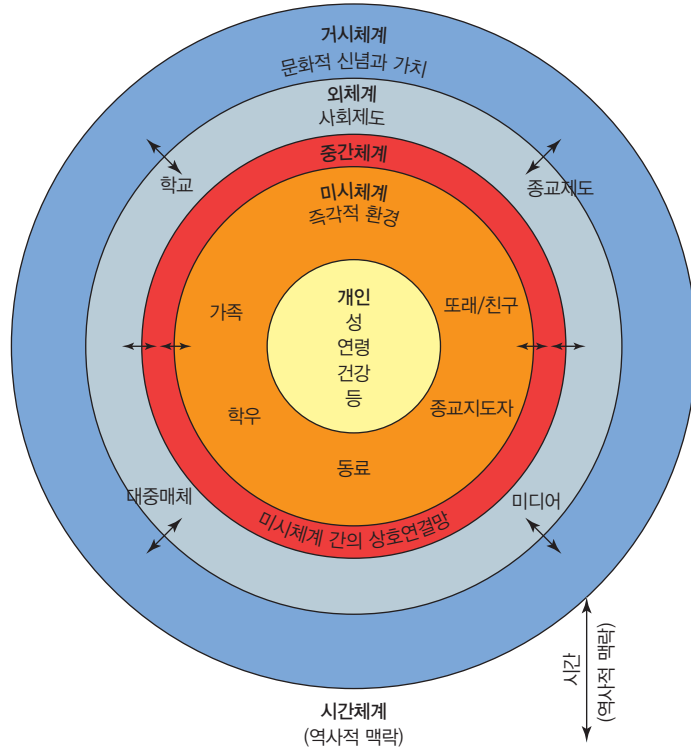


그림 1.7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의 시스템

인간발달에 관한 이 이론은 프로이트 이론과 에릭슨의 이론과 어떻게 다른가?

친구로 삼을지 선택도 한다. 미시체계는 발달심리학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발달심리학자들은 직접적 환경과 관계를 칭하는 데 미시체계보다는 맥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중간체계는 다양한 미시체계 간의 상호연결망이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또는 부모의 고용주가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요구하면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외체계는 간접적이지만 발달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를 칭한다. 브론펜브레너의 이론에서 이 제도에는 학교, 종교 단체, 미디어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쟁이 매우 심하며, 입학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치르는 수능 성적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은 극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 된다.

- 거시체계는 광범위한 문화적 신념과 가치 시스템, 그리고 이 신념과 가치에 근거하여 구성된 경제적 시스템과 정부 시스템을 아우르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문화적 신념과 가치가 이슬람 문화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경제와 정부 시스템 역시 이슬람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반대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개인적 자유 가치에 대한 신념이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거시체계가 이슬람 종교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슬람 종교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

